

# ‘미래인재 육성’ 해남 장학사업기금 234억 돌파

군, 2032년까지 500억 목표…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명현관 군수 “교육 통해 더 나은 해남 구축 노력 최선”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이 지난해까지 234억원을 돌파하며 2032년까지 500억원 조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 학습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목표

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32년을 목표로 매년 군 출연금 30억 원 적립과 군민·향우 등의 자발적 기탁이 더해지며 사업추진 5년여만에 123억14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1년 당시 110억9700만원에 비

해 두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원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은 지난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장학사업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기탁식에는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탁에는 해남진도축협(조합장 한종희), 원광전력㈜(대표 전연수), 해남군인

회협회(회장 노병호), 구보다농기계 해남 대리점(대표 이병현), SK전기안전관리(대표 박종섭), 학동농장(대표 박홍규), 해남노인요양센터(원장 임재운) 등이 참여했다.

올해로 5년째 기탁을 이어오고 있는 해남진도축협은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역 중견기업인 원광전력도 500만원을 기탁했다.

구보다농기계 해남대리점 이병현 대표와 SK전기안전관리 박종섭 대표도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속 참여 의사를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교육재단을 출범하고, 아동·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강좌, 성인 문해교육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장학기금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더 나은 해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노인요양센터의 임재운 원장은 40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임 당일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큰 감동을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교육재단을 출범하고, 아동·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강좌, 성인 문해교육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장학기금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더 나은 해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58239@gwangnam.co.kr



원아·교사 정성 모아 나눔 동참 목포 옥암동 소재 아델리움어린이집은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 30박스를 옥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라면은 아델리움어린이집이 매년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운영하는 바자회 ‘마음나눔 행복장터’를 통해 마련된 물품으로, 원아 29명과 교사 11명 등 총 40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진제공=목포시

## 광양, 지난해 인구 15만7636명…4년 연속 증가세

기업 입주·생애주기별 복지정책·청년인구 증가 등 주효

광양시 인구가 기업 입주와 복지정책 등에 힘입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양시 주민등록 인구는 15만7636명(외국인 포함)으로, 전년도(15만4692명)에 비해 968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증가 규모는 2022년 1914명, 2023년

834명, 2024년 2154명에 비해 지난해 69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광양시의 4년 연속 인구 증가는 기업 입주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에 따른 출산율 증가, 취업에 따른 청년인구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철강, 이자전지 등 기업입주와 지역특화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고용인원이 1100명이나 증가해 총 취업자수가 8만6700명(상반기)에 달하고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비, 주택자금 지원 등 청년 정책 확대를 해나

가고 있다.

또 출생아수도 2022년 867명, 2023년 832명, 2024년 941명으로 증가하고, 합계 출산율도 2022년 1.06에서 2023년 0.996, 2024년 1.090으로 들어나고 있다.

이봉례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광양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생률 상승과 청년 유입이 늘어나고 지역 정책, 일자리 기회,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구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화순, ‘화순사랑상품권’ 800억 규모 발행

10% 선할인 유지…2~5% 캐시백 결합

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화순사랑상품권’을 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군은 지류와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의 인증적인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 선할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10%를 초과하는 추가 할인의 경우에는 결제 시 적립되는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 1월 한 달간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2%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제공한다.

또 화순군은 지난해 129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5% 캐시백 적립, 추석 명절 및 연말 구매 할인 200만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운영하며, 약 1000억원 규모의 화순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화순사랑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유인이 확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발행 규모와 혜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의 사용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중심의 할인 혜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구명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장흥,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대폭 상향

지역 건설업체 경영부담 완화·지역경제 활력 기대

장흥군은 1월부터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가격·노임단가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온 낙찰하한율을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낙찰하한율 조정에 나섰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용역·물품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원 이하는 기준 95%(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기준 93%에서 98%로,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기준 90%에서 96%로, 2000만원 초과는 기준 88%에서 93%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낙찰하한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를 막아 공사 품질과 안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고정돼 있던 낙찰하한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사 품질은 높이고 지역업체는 키우는 계약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4차 부적정 공식 회신 발송

목포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허가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네 번째 부적정 의견을 공식 회신하며 사업 주진 반대 입장을 재확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허가 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 최근 ‘부적정’ 의견을 거쳐 일관되게 네 번째 부적정 의견을 재확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 제출이다.

목포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네 번째 ‘부적정’ 의견을 거쳐 일관되게 네 번째 부적정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부적정 회신은 단순한 법률 검토에 그친 판단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특화 시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과 지역사회 전반의 우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생활환경과 시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일관된 반대 입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보건소에서 개최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적합성 평가 모습.

## 나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선정

2026~2029년…남도 미식문화 중심지 위상 강화

전남도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속 개최지로 나주시가 선정돼 남도 음식문화와 미식 관광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로 나주가 최종 선정됐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30여년의 전통을 가지며 남도 고유의 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남도 대표 음식문화 축제다.

행사 기간에는 남도 음식문화 전시관 운영을 비롯해 음식 경연 프로그램, 판매 장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남도 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선정은 나주시의 음식문화 경쟁력과 축제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며 “남도 음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2026 나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미식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